

韓國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外來語의 表記問題 論考

金 庚 益

目 次

1. 序 論	第3表 한글의 音節構造
2. 音節問題	第4表 英語의 音節構造
3. 音韻同化問題	第5表 英語의 音節構造別使用頻度
4. 外國人의 우리말表記實例	第6表 漢字를 媒介로한 韓國語와 日本語의 音韻比較
5. 重母音의 處理	第7表 西洋말을 媒介로한 韓國語와 日本語의 音韻比較
6. 重子音의 處理	第8表 漢字말의 音韻同化實例
7. 長音不表記原則	第9表 外國人의 우리말 子音表記對照表
8. 生疎한 子音의 處理	第10表 McCune-Reischauer의 우리말 音調變化表
9. 外來語表記原則試案	第11表 西洋말에서의 우리 地名 人名表記實例
10. 結 語	第12表 漢字말의 重母音同化實例
	第13表 우리말속의 重子音實例
第1表 新聞記事의 音節成分實例	第14表 長音不表記實例
第2表 音節이 줄어든 外來語實例	第15表 子音表記對照表(試案)

1. 序 論

現代 커뮤니케이션手段으로서의 外來語는 外國에서 빌려온 말이 아니라 便宜上 外國말을 土臺로하여 만들어낸 우리말이라는 觀點에서 外來語는 外國語일수 없다. 그러므로 外國語를 필요에 따라 우리말로表記하는 작업은 造語작업의 일부이며 外來語形成過程의 첫 工程이 될수있다. 이 工程에서 매스 미디어從事者 혹은 그밖의 엘리트들에 의해 調理된 外國語는 다음 工程인 大衆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비로소 그들의 입맛에 맞는 新語로 다듬어져 우리 言語團體에 歸化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形成된 外來語는 이미 原地語의 모든 規制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우리말의 規範에 따르게 되며 우리 言語團體의 一員으로서 生存權을 갖는 것이다.

오랜동안 統一을 모색해온 우리나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外來語 및 外國語의 한글表記는 몇 해전부터 文敎部가 制定한 敎科書編修資料의 外來語表記原則에 따르는 方向으로 굳어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細則에서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인것으로 생각된다.

1. 編修資料에 대한 不滿
2. 朝鮮語學會가 1940년에 내놓은 外來語表記統一案에 대한 再認識
3. 外來語表記原則의 不必要論

더욱, 매스미디어 實務者들의 態度를 보면

1. 原音を 지나치게 充實히 表現하려는 나머지 우리말의 音韻體系를 無視하고 있는 印象을 주는 태도
2. 美語. 英語. 日語등 손쉬운 第3國語의 外來語發音을 모방하려는 태도
3. 스펠링에 充實하려는 태도
4. 萬國發音符號 (IPS) 혹은

Webster 發音符號(WPS)를 媒介로 하여 表記하려는 태도

5. 知識人에서 흔히 볼수있는 自己主張
등이 눈에 띈다.

이유와 태도는 어떻든간에 外國語는 점차로 우리 生活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方便으로서 침투해 들고 있으며, 일단 들어온 外國語는 歲月이 감에 따라 우리말의 音韻體系에 同化되고있다. 漢字말이 빼놓을수 없는 우리말의 外來要素인 것과 마찬가지로 西洋말들도 먼 훗날엔 名實共히 우리말이 될수 있을것이다. 本稿는 이 同化作用을 촉진하고 外國語의 歸化期間을 단축시키는 方向으로 外國語가 우리글로 表記되어야 한다는 信念에서 그 試案을 마련해 본 것이다.

試案에는 다음과 같은 原則들이 重要하게 準據되었다.

1. 우리말의 音韻體系 및 우리나라 大衆의 言語慣習을 尊重
2. 原音의 特色을 保存
3. 効率性 (efficiency)
4. 大衆性 (commonalty)
5. 合理性 (rationality)

外來語表記에 일부 혼란이 있고 한글 맞춤법이 아직도 論議되고 있는 오늘날 外國語歸化手續 簡素化문제를 再檢討하는 것은 우리말의 効率化와 民主化를 위해서도 必要한 일임엔 틀림 없을 것이다. 우선 外國語를 우리글로 表記하는데 관련된 문제들을 考察해 본다.

2. 音節問題

西洋말에 비해 우리말은 音節이 分明하다. 우리말을 表記함에 있어서는 한 音節을 반드시 한 글자로 적고 대개 하나, 둘 내지 세 글자로 한 낱말을 이루고, 각 낱말은 떼어쓰되 토(助詞)는 앞 낱말에 붙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각 글자는 홀소리(母音)와 닿소리(子音)의 여러가지 콤비로 마련 된다. 단, 홀소리는 홀로 한 音節을 代表할수 있으며 하나의 낱말을 表現하기도 한다. 오늘날 홀소리를 홀로 쓸적에 전혀 작용하지 않는 닿소리 字母 ㄹ을 붙여주는 것은 우리글이 '한 音節 한글씨' 原則에서 文字의 形態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그러나 西洋말은 한 낱말을 이루는 音節들이 文字上에 확연히 表示되지 않으며 發音에 있어서도 우리말처럼 분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西洋말을 우리 言語團體에 歸化시키려면 먼저 音節이 분명치 않은 原語發音을 분명한 音節로 區分한 다음에 우리 音韻體系에 따라 發音하고 우리 文法에 따라 表記하게 된다.

“한音節 한文字”의 原則은 千餘年前부터 우리 言語團體에 들어온 漢字말에서도 例外없이 적용되어 있다. 이는 漢字 하나를 둘 이상의 音節로 나누어 두 文字 이상으로 표기하는 수가 많은 日本語의 경우에 비해 우리말이 훨씬 발달된 것임을 여실히 實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日本語의 表記方式을 유독 西洋外來語에서 적용하려 하는 것은 설혹 우리나라 文化의 現實이 日本의 影響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納得이 가지 않는 일이다. 音節을 늘려 表記하려는 경향은 新聞記事의 音節成分을 조사해 보면 一目瞭然하다.

가장 發刊部數가 많다는 東亞日報의 1967年 12月 15日 第1面의 政治面 特記事와 同紙 社會面 特記事와 第2面의 外信 特記事를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音節成分을 파악할 수 있었다. (合成語는 떠어서 處理). 물론 이것은 주어진 與件에서 斷片的인 調査에 그친 것이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들어난 것이라고 보겠다.

第1表 新聞記事의 音節成分實例

(內信記事의 경우)

語種		音節數										計	比率
		1	2	3	4	5	6	7	8	9	10		
固有語	날말	56	70	13	—	—	—	—	—	—	—	139	18.2
	토	132	16	10	—	—	—	—	—	—	158	20.7	
	小計	188	86	23	—	—	—	—	—	—	297	39.0	
漢字語		183	265	13	—	—	—	—	—	—	461	60.6	
外來語		0	2	1	—	—	—	—	—	—	3	0.4	
計		371	353	37	—	—	—	—	—	—	761	100	
比率		48.8	46.4	4.8	—	—	—	—	—	—	100	%	

(外信記事의 경우)

語種		音節數										計	比率
		1	2	3	4	5	6	7	8	9	10		
固有語	날말	45	53	8	1	—	—	—	—	—	—	106	25.9
	토	77	27	—	—	—	—	—	—	—	104	25.6	
	小計	122	80	8	1	—	—	—	—	—	211	51.5	
漢字語		54	108	1	—	—	—	—	—	—	163	39.8	
外來語		1	2	18	8	3	1	1	1	—	35	8.6	
計		177	190	27	9	3	1	1	1	—	409	100	
比率		43.3	44.0	6.6	2.2	0.7	0.25	0.25	0.25	—	100	%	

第1表에서 內信記事보다 外信記事에서 날말의 音節數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즉, 內信은 한音節語와 두音節語가 95.2%를 차지하고, 3音節語가 不過 4.8%, 4音節語 이상의 날말이 없는데 비해 外信은 한音節語와 두音節語가 87.3%, 3音節語가 6.6%, 4音節語 이상의 날말이 3.7%나 된다. 이는 外信記事중에 생소한 外來語와 外國의 地名 人名등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外來語의 音節數가 많은 것은 外國語를 우리말로 옮겨쓸적에 우리 音韻 體系를 無視 내지 輕視한 것임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大衆간의 커뮤니케이션過程을 거친 外來語는 대개 두音節 내지 세音節로 同化되어 있는데 例를 들면 다음表와 같다. 이들은 原語의 音節이 상당히 긴것도 그 特徵的인 音단을 따서 사용한다.

第2表 音節이 들어든 外來語實例

곰비 (combination)	공구리 (concrete)
공굴 (concrete 굴)	콜라 (cocoa cola)
껌 (chewing gum)	다이아 (diamond)
담배 (tobacco)	터프레 (deflation)
텔레비 (television)	페모 (demonstration)
메스컴 (mass communication)	프로 (program, percent, professional)
바마 (permanent wane)	에어콘 (air condition)
백 (handbag, backhound)	스텝 (stainless steel)
스프링 (spring coat)	메모 (memorandum)
인플레이 (inflation)	오바 (over coat)
아파트 (apartment)	예수 (Jesus Christ)
유엔 (United Nations)	핸거지 (handkerchief)
체코 (Czechoslovakia)	유고 (Yugoslavia)
미국(美國)(America)	영국(英國)(England)
독일(獨逸)(Deutschland)	호주(濠洲)(Australia)
화란(和蘭)(Holland)	분란(芬蘭)(Finland)
상항(桑港)(San Francisco)	성항(星港)(Singapore)

音節構造面에서 볼적에 한글은 당소리(子音) 14개와 홀소리(母音) 10개로써 27가지의 콤비로 수많은 종류의 音韻을 表記할 수 있기 때문에 外國語發音을 옮겨 쓰는데 便利하다. 다만 우리가 쓰지않는 音韻은 字母가 당초부터 없거나 必要가 없어 淘汰되었을 뿐이다.

한글과 英語의 音節構造를 비교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第3表 한글의 音節構造

① 母音	이
② 母音+母音	애
③ 母音+母音+母音	웨
④ 母音+子音	웃
⑤ 母音+母音+子音	윈
⑥ 母音+母音+母音+子音	엥
⑦ 母音+子音+子音	얏
⑧ 母音+母音+子音+子音	엡(다)
⑨ 母音+母音+母音+子音+子音	
⑩ 子音+母音	소
⑪ 子音+母音+母音	쇠
⑫ 子音+母音+母音+母音	괘
⑬ 子音+母音+子音	강
⑭ 子音+母音+母音+子音	벽
⑮ 子音+母音+母音+母音+子音	평
⑯ 子音+母音+子音+子音	담

- ⑰ 子音+母音+母音+子音+子音
 - ⑱ 子音+母音+母音+母音+子音+子音
 - ⑲ 子音+子音+母音 잠
 - ⑳ 子音+子音+母音+母音 깨
 - ㉑ 子音+子音+母音+母音+母音 퀘(다)
 - ㉒ 子音+子音+母音+子音 껌
 - ㉓ 子音+子音+母音+母音+子音 평
 - ㉔ 子音+子音+母音+母音+母音+子音 행(과리)
 - ㉕ 子音+子音+母音+子音+子音 꺾(다) 째(다)
 - ㉖ 子音+子音+母音+母音+子音+子音
 - ㉗ 子音+子音+母音+母音+母音+子音+子音
- (例를 들지 않은 音節構造는 오늘날 別로 使用되지 않고있는 것들이다)

第 4 表 英語의 音節構造(單音節語의 경우)

① 母音	a
② 母音+子音	it
③ 母音+子音+子音	apt.
④ 子音+母音	she
⑤ 子音+母音+子音	can
⑥ 子音+母音+子音+子音	risk
⑦ 子音+母音+子音+子音+子音	midst
⑧ 子音+母音+子音+子音+子音+子音	texts
⑨ 子音+子音+母音	draw
⑩ 子音+子音+母音+子音	drug
⑪ 子音+子音+母音+子音+子音	stand
⑫ 子音+子音+母音+子音+子音+子音	twelfth
⑬ 子音+子音+母音+子音+子音+子音+子音	twelfths
⑭ 子音+子音+子音+母音	spree
⑮ 子音+子音+子音+母音+子音	spring
⑯ 子音+子音+子音+母音+子音+子音	splits

第 3 表와 第 4 表를 비교해 보면 子音+母音+子音의 基本構造에서 한글과 英語가 一致하고 있으나 한글의 경우 初聲과 終聲에서 子音 둘까지 쓸수 있는데 대해 英語는 넷까지 겹칠수 있다. 한글도 옛날엔 셋까지는 겹쳐 쓴 사실이 있지만 오늘날엔 둘이 최고다.

母音의 경우는 한글이 셋까지 겹쳐 한音節을 나타내게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母音이 둘 이상 겹쳐서 한音素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3개이상의 子音群을 한글로 表記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 매스 커뮤니케이션 原音에 없는 母音 ‘一’등을 붙혀 表記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 자연 原音과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音節이 늘어나서 우리 音韻體系에 疎遠해지기 마련이다. 차라리 子音이 셋 이상되는 경우 그중 중요하지 않은것을 省略하는 것이 더 妥當하고 便利할때가 많다.

그러나 英語의 경우에도 셋 이상의 子音群은 적 드물다.

第5表 英語音節構造別使用類度(中學校教科書 基礎單語 520을 對象으로 함)

開音節	253	34.7%
母音	82	11.3%
子音+母音	151	20.7%
子音+子音+母音	20	2.7%
閉音節	475	65.3%
母音+子音	62	8.5%
母音+子音+子音	15	2.1%
子音+母音+子音	289	39.7%
子音+母音+子音+子音	52	7.1%
子音+子音+母音+子音	36	5.1%
子音+母音+子音+子音+子音	6	0.8%
子音+子音+字音+母音+子音	3	0.4%
子音+子音+母音+子音+子音	1	0.1%
子音+子音+母音+子音+子音+子音	1	0.1%

3. 音韻同化現象

外來語의 同化現象은 가장 歷史가 오랜 漢字말에서 뚜렷하다. 그것은 千餘年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化하였고 日本에 가선 日本말化 하였다. 물론 原產地인 中國에서도 그들대로의 音韻變化를 가져왔을 것이다.

日本の 漢字말 및 西洋外來語와 우리의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 兩國語의 音韻差異를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藥毒을 우리말은 ‘약독’이라고 두 글자로 표기하는데 日本語는 ‘ヤクドク’로 네 글자로 적는다. 日本말의 ヤクドク(야꾸도꾸)는 또 譯讀(역독)과 區別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音韻이 단순한 日本語는 不得已 많은 同音語를 낳았으며 오늘날 日本에서 이 문제처리에 골치를 앓고있는 形便이다. 그 몇가지를 들면 다음表와 같다.

第6表 漢字를 媒介로한 韓國語와 日本語의 音韻比較

(漢語)	(韓國語)	(日本語)
振興	진 흥	シンコー(신코오)
進行	진 행	//
新興	신 흥	//
新考	신 고	//
信仰	신 앙	//
親交	친 교	//
親好	친 호	//
新鑛	신 광	//
新香	신 향	//
深更	심 갱	//
深考	심 고	//
新講	신 강	//
新校	신 교	//
深耕	심 경	//
進講	진 강	//
深紅	심 홍	//

深厚	심 후	//
進攻	진 공	//
侵攻	침 공	//
進航	진 항	//
寄港	기 항	キコ一(기코오)
寄稿	기 교	//
歸港	귀 항	//
起工	기 공	//
歸校	귀 교	//
起行	기 행	//
氣候	기 후	//
季候	계 후	//
貴校	귀 교	//
貴公	귀 공	//
歸降	귀 강	//
歸耕	귀 경	//
機構	기 구	//
紀綱	기 강	//
機甲	기 갑	//
機工	기 공	//
龜甲	귀 갑	//
氣孔	기 공	//

工期	몽 기	コ一キ(코오기)
後期	후 기	//
好期	호 기	//
綱紀	강 기	//
校紀	교 기	//
衡器	형 기	//
好奇	호 기	//
光輝	광 휘	//
香氣	향 기	//
皇紀	황 기	//
廣軌	광 궤	//
興起	흥 기	//
後記	후 기	//
高貴	고 귀	//
耕起	경 기	//
口器	구 기	//

成功	성 공	セイコ一(세이코오)
性交	성 교	//
性向	성 향	//
性行	성 행	//
精巧	정 교	//
製綱	제 강	//

精鋼	정 강	//
政綱	정 강	//
西郊	서 교	//
清光	청 광	//
正鶴	정 곡	//
西高	서 교	//
正攻	정 공	//
精鑲	정 광	//
正項(級數)	정 항	//

第7表 西洋말을 媒介로한 韓國語와 日本語의 音韻比較

(西洋말)	(韓國語)	(日本語)
gum, gomme	고무	ゴム
chewing gum	껌	チューインガム
Christ	그리스도	キリスト
paul	바오로	パウロ
taxi	택시	カクシー
handkerchief	ハン거지	ハンカチ
catholic	가톨릭	カトリック
Jordan	요단	ヨルダン
bus	버스	バス
chapeau	사포	シャポー
mass communication	매스컴	マスコミ
inflation	인플레이	インフレ
lamp	램프	ランプ
percent	프로, 퍼센트.	プロ, パセント
program	프로	プロ, プログラム
professional	프로	プロ, プロフショナル
flooring	후로링	フロリング
frock coat	후록코트	フロックコート
cemten	시멘	セメント
concrete	콩구레, 콩구리	コンクリート
stainless steel	스텝	ステンレス
nylon	나이롱	ナイロン
radio	나조	ラジオ
pain	빵	パン
truck	추럭	トラック
diamond	다이아	ダイヤモンド
panel	바넬(建築用具)	パネル
handbag	백	ハンドバック
background	백	バックグラウンド

第8表 漢字말의 音韻同化現象實例 (接變現象의 경우)

㉑ 리→ㄴ

論理 (론리) → 놀리

老人 (로인) → 노인

樓閣 (루각)	→	누각	
喇叭 (라팔)	→	나팔	
㊦	ㄹ	→	ㅇ
麗水 (려수)	→	여수	
流浪 (류랑)	→	유랑	
柳 (류)	→	유	
料理 (료리)	→	요리	
理論 (리론)	→	이론	
㊦	ㄴ	→	ㄹ
全羅道(전라도)	→	절라도	
新 羅(신 라)	→	실라	
千 里(천 리)	→	철리	
論 理(론 리)	→	놀리	

4. 外國人의 우리말 表記實例

外國人이 우리말을 어떻게 자기네 글로 옮겨 쓰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말을 表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그 몇가지 實例를 들어 본다.

그들이 우리말을 表記할때의 音韻對照와 우리가 그들의 말을 表記할때의 音韻對照가 一致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 表記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第9表 外國人의 우리말子音表記 對照表

(表記者)	ㄱ	ㄷ	ㅂ	ㅈ	ㅋ	ㅌ	ㅍ	ㅊ	ㅎ	ㅇ	ㅁ	ㄴ	ㄹ
韓佛字典	K	T	P	TJ	HK	HT	HP	TCH	H	NG	M	N	R
McCune-Reischauer, Scott	K	T	P	CH	K'	T'	P'	CH'	H	NG	M	N	R
Aston	K	T	P	CH	KH	TH	PH	CHH	H	NG	M	N	R
Medurst	K	T	P	TS	K'H	T'H	P'H	T'SH	H	NG	M	N	R
Eckardt	K	T	P	TJ	KH	TH	PH	TCH	H	NG	M	N	R

더욱 최근 駐韓外國機關들에서 準則으로하고 있는 McCune-Reischauer 表記法은 ㄱ, ㄷ, ㅂ, ㅈ을 첫소리에서 k, t, p, ch로 하고 가운데소리는 有聲音뒤에서 g, d, b, j로 각각 대응시켜 놓았다. 접닿소리는 각각 k, t, p, ch를 겹쳐 表記했으며 홀소리 ㅏ, ㅑ, ㅓ, ㅕ는 ya, yo, yo, yu로 ㅡ는 ㅓ로 대응시키고 겹홀소리 ㅕ, ㅖ, ㅗ, ㅛ, ㅜ, ㅠ, ㅡ는 ae, yae, e, ye, wa, wae, oe, wō, we, wi, i로 받침은 ㄱ, ㅋ→k, ㄷ, ㅌ→t, ㅂ, ㅍ→P, ㄴ→n, ㄹ→l, ㅁ→m, ㅇ→ng, 그리고 겹받침 ㄱ, ㅌ을 kk, tt로 각각 대응시켰다.

그리고 接變現象에 대해선 다음과같은 Euphonic Conversion Chart로 표시했다.

第10表 McCune-Reischauer의 우리말 音調變化表

받 침		無	ㄱ	ㄴ	ㄷ	ㄹ	ㅁ	ㅂ	ㅇ
			K	N	T	L	M	P	NG
다음에 오는 音		無變化	G	N	D	R	M	B	NG
母 音									
ㄱ	K	G	KK	NG	KK	LG	MG	PK	NGG
ㄴ	N	N	NGN	NN	NN	LN	MN	MN	NGN

ㄷ	T	D	KT	ND	TT	LT	MD	PT	NGD
ㄹ	R	R	NGN	LL	MN	LL	MN	MN	NGN
ㅁ	M	M	NGM	NM	NM	LM	MM	MM	NGM
ㅂ	P	B	KP	NP	PP	LB	MB	PP	NGB
ㅅ	S	S	KS	NS	SS	LS	MS	PS	NGS
ㅈ	CH	J	KCH	NJ	TCH	LCH	MJ	PCH	NGJ
ㅊ	CH'	CH'	KCH'	NCH'	TCH'	LCH'	MCH'	PCH'	NGCH'
ㅋ	K'	K'	KK'	NK'	TK'	LK'	MK'	PK'	NGK'
ㅌ	T'	T'	KT'	NT'	TT'	LT'	MT'	PT'	NGT'
ㅍ	P'	P'	KP'	NP'	TP'	LP'	MP'	PP'	NGP'
ㅎ	H	H	KH	NH	TH	RH	MH	PH	NGH
ㄱ	KK	KK	KK	NKK	TKK	LKK	MKK	PKK	NGKK
ㄴ	TT	TT	KTT	NTT	TT	LTT	MTT	PTT	NGTT
ㅅ	PP	PP	KPP	NPP	TPP	LPP	MPP	PP	NGPP
ㅆ	SS	SS	KSS	NSS	SS	LSS	MSS	PSS	NGSS
ㅈ	TCH	TCH	KTCH	NTCH	TCH	LTCH	MTCH	PTCH	NGTCH

第11表 西洋말에서의 우리 地名. 人名表記實例

<우리말>	<外國語>
고려 (高麗)	Korea
서울	Seoul
부산 (釜山)	Pusan
대구 (大邱)	Taegu
광주 (光州)	Kwangju
울산 (蔚山)	Ulsan
동래 (東萊)	Tongnae
김 (金)	Kim, Gim
이 (李)	Yi, I, Rhee, Lee, Ree, Ri, Lhee, Lyi, Lhy
최 (崔)	Ch'oi,
신 (申. 辛)	Sin, Shin,
유 (柳. 愈. 劉)	Yu, Lyu, Rew, Ryu, Ryoo, You, Yuh,
박 (朴)	Pak, Bak, Bark, Back, Pack, Park.
서 (徐)	Sŏ, Serh, Shur, Soh,
노 (盧)	No, Row, Ro, Roe, Roh, Rho, Rowe
엄 (嚴)	Om, Erm, Urm.
양 (梁)	Yang, Ryang, Yahng. young
백 (白)	Paek, Baek, Baik, Back, Pack, Paik
우 (禹)	U, Wu. Woo, Uh
임 (林)	Yim, Im, Lim, Limb, Rim

第9表와 10表, 11表에서 다음과 같은 對應關係를 볼 수 있다.

ㄱ-K,G, ㄴ-N, ㄷ-D, T, ㄹ-L, ㅁ-M, ㅂ-P, B, ㅅ-S, SH, ㅇ-NG. ㅈ-CH, TS, TJ, ㅊ-CH', TCH, CHH, T'SH, ㅋ-K', KH, HK, K'H ㅌ-T', TH, HT, T'H ㅍ-P', PH, HP, P'H, ㅎ-H, ㅏ-A, ㅑ-YA, ㅓ-EO, O, ER, ㅕ-EA, YO, ㅗ-O, ㅛ-YO ㅜ-U, ㅠ-YU, ㅡ-Ŭ, ㅣ-I

5. 重母音의 處理

우리말의 겹홀소리(重母音)는 ㅞ(æ), ㅟ(e), ㅠ(oe) 등 單母音으로 發音되기도 하고 ㅢ(ui), ㅣ(wi), ㅤ(wa), ㅥ(wæ) ㅦ(we) 등과 같이 重母音 혹은 子母+母音으로 發音되기도 한다. 그리고 ㅧ. ㅨ. ㅩ. ㅪ(ja, jø, jo, ju)는 홀홀소리지만 子音+母音 혹은 重母音의 구실을 한다.

겹홀소리의 特徵은 세겹홀소리(3重母音) ㅫ+ㅬ+ㅭ→ㅯ가 oai 로 발음되지 않고 wæ (子音+적는 母音)로 處理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英語의 경우 겹친 母音들이 제각기 聲價를 지녔다곤 하지만 두 音節은 아니다. 따라서 ao, ai ei, oi, iø, øø, uø, ou 등을 아오, 아이, 에이, 오이, 이어, 오어, 우어, 오우 등 두 音節로 表記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말의 音韻에 生疎한것은 가장 가까운것으로 同化시켜야 마땅하다.

第12表 漢字말의 重母音 同化現實例(中國人名 地名에서)

㉑ 아오→오

- 毛澤東(마오쩌둥) → 모택동
- 王兆銘(왕자오밍) → 왕조명
- 曹 鎰(차오 쿤) → 조 쿤
- 劉少奇(류샤오지) → 유소기
- 青 島(친따오) → 청도
- 巢 湖(차오후호) → 소호
- 桃 源(타어위안) → 도원
- 潮 安(차오 안) → 조안
- 包 頭(빠오트우) → 포두
- 遼 陽(랴오 양) → 요양

㉒ 에이→이

- 宋美齡(송메이링) → 송미령
- 康有爲(강유웨이) → 강유위
- 濰 縣(위 에 셴) → 위현
- 維 坊(웨이팡) → 위방
- 威海衛(웨이하이웨이) → 위해위
- 峨嵋山(어메이산) → 아미산

㉓ 에이→에

- 吳佩孚(우페이후) → 오페부
- 梅縣(메이셴) → 메현 (괄호안은 現在 中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音에 따라 表記한 것)

이러한 音韻同化現象으로 미루어 西洋말의 重母音이 우리말에 들어와서는 다음과 같은 變化를 일으키게 될것임을 豫言할수 있다.

ei → ㅦ 혹은 ㅭ

ai → ㅤ

oi → ㅢ

au → ㅧ 혹은 ㅨ 혹은 ㅩ

ou → ㅣ

다만 中世에서 中國語音에 있는 平聲上聲去聲을 點으로 표시한적은 있었지만 이미 그런 구차한 것은 하지 않은지 오래다. 中國에서도 물론 音節의 高低長短을 文字上에 表示하지 않는다. 다만 日本語의 경우는 같은 母音을 되풀이 하거나 “—”표로 長音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부에서 이에 追從하고 있는것은 日本文化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것이다.

우리말은 中國語와 같이 字形과 字數를 重要視하기 때문에 不必要한 글자나 符號를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文字는 같지만 發音의 長短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第17表 長音不表記實例

㉑ 固有語

(낱말表記)

밤

말

음

감

속

해

손

발

돌

알

갈다

무

들

거지

눈

㉒ 漢字語

이론

사용

정부

고고

사설

교각

선도

연기

고사

신장

산신

사회

사색

교수

(長音)

栗

言語

病名

柿

內

害

孫

簾

石

知

磨

채소의 一種

野

乞人

雪

理論

使用

政府

考古

社說

橋脚

善導

演技

考査

腎臟

産神

社會

四色

教授

(短音)

晩

馬

來

去

俗

太陽

客

足

周年

卵

交替

無

울릴

거지없다

眼

異論

私用

情夫

孤高

私設

矯角

先渡

延期

枯死

身長

山神

司會

思索

絞首

8. 生疎한 子音의 處理

우리音韻體系에 없는 子音이 外國에선 흔하게 쓰이는 例가 있는데 이경우는 우리말 子音중 가

장 가까운 것으로表記되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 最近似音素를 擇하는데 있어선 有聲 無聲, 齒音, 舌音, 唇音, 牙音, 喉音의 각 範疇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㉔ f, v 는 p, b 와 함께 우리말의 唇音 ㅍ, ㅂ 으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劃一的으로 p, f 는 ㅍ, b, v 는 ㅂ 으로 對應시키는데는 無理가 있다. p 가 ㅍ 혹은 ㅂ 과 對應되는 경우가 있는데 f 가 후로 b 가 ㅂ 으로 v 가 우로(Wien→원 Vladivostok→울라디보스톡) 발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第7表參照). 더욱 v 음은 우리말 古語 ㅍ 음과 비슷하다고하니 ㅍ 이 淘汰된 오늘날 그것을 ㅂ 으로表記하는 것은 不當하다.

㉕ ㅌ 와 ㅎ (英語의 th 音)은 前者가 無聲音이오 後者가 有聲音이니 만큼 이를 區別해야 마땅하다. ㅌ 은 古語중 ㅍ 에 對照될 수 있을 것이며 無聲音중 가장 가까운 ㅍ 으로 ㅎ 은 有聲音중 가장 가까운 ㅍ 으로 각각表記되어야 한다. 發音時의 입안 位置보다도 有聲, 無聲의 더 重要視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㉖ g, d, b 의 發音은 우리말에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大衆은 이를 ㄱ, ㄷ, ㅂ 으로 각각 발음한다. 게임(game), 곶(gaol), 떠불벤(double bed), 댄서(dancer), 버스(bus), 뽀이(boy) 등이 그 려하다. 말하자면 g 음이 ㅇ + ㄱ 으로 받아들여져서 ㄱ 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g → ㅇ + ㄱ → ㄱ

d → ㅇ + ㄷ → ㄷ

b → ㅇ + ㅂ → ㅂ

9. 外國語表記原則 試案

1. 原語의 標準發音을 되도록 충실히 한글로 옮기되 우리나라 大衆이 흔히 쓰는 音素로서 한다.

한 낱말의 發音이 原地에서도 여러가지로 쓰이는수가 많다. 이런 경우엔 그 標準發音을 좇아야 할것이다. 原音을 한글로 옮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不可能한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가장 가까운 發音으로 옮겨놓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原音의 各音素에 너무 執着한 나머지 우리말 固有의 體制를 파괴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것은 事大主義는 아니라 할지라도 主體意識의 薄弱에서 온것이라고 볼수있겠다.

外國語를 우리말에서 使用하기위해 그것을 한글로 표기함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말의 傳統을 존중해야 할것이고 우리나라 大衆이 흔히 쓰는 音素로서 적어야만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대개 外來語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言語習慣에 적응하고 日本, 中國등에 가선 그들의 言語社會에 定着하게 되기 때문에 歸化후의 外來語는 제각기 方式으로 文字와 發音과 경우에 따라서는 뜻마저도 變化되어 原產地의 그것과는 判然인 것이다.

表音은 原地에서 직접 귀로 들은대로 적은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려울때는 暫定 조치로 萬國發音符號(IPS) Webster 發音符號(WPS) 혹은 發音綴字(respelling)등을 利用하는것도 좋다. 다만 強弱이 현저한 英語의 경우엔 強勢가 주어진 音素를 중요시하고 사소한 子音이나 枝葉의 異音(Allophone)같은 것은 省略할수도 있을 것이다.

表記에 있어선 한글로 表現할수 있는 音素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大衆이 쓰지 않는 것은 使用하지 말아야 한다.

2. 우리말의 慣習과 音韻體系에 적응시킨다. 이로인해 原音과 멀어지는 것은 不問에 붙인다. 우리말을 表記하는 한글은 단순한 發音符號가 아니며 그것이 지닌 表意의 구실도 重要視되어야 한다. 이미 한글맞춤법에서 이 구실이 뛰어난바 있거니와 外來語表記에서도 活用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엔 發音되지않거나 다른 音素로 變音되는 字母라도 그 낱말의 活用に 따라 聲價를 나타내는 것은 表記해야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한 낱말의 發音이 變하는것은 우리말의 慣習이기때문이다. ‘밖다’가 ‘발다’로 발음되지만 ‘밖아오다’에선 ‘발가오다’로 되어 묻혔던 音素 ‘ㄱ’이 되살아 난다. ‘팻’은 홀로선 ‘팻’으로 발음되나 뒤에 母音을 앞세운 토(助詞)가 오면 ‘파테’ ‘파틀’ 등으로 ‘ㅌ’의 聲價가 나타난다.

이것을 外來語에 적용하면 ‘백컬’(boycott)은 홀로 ‘백컷’으로 발음되나 위에 토가 붙으면 ‘백커틀’ ‘백커테서’등으로 ‘ㅌ’音素의 聲價가 나타난다. 펠로십(fellowship) 역시 홀로선 ‘펠로십’이 되나 토가 오면 ㄷ받침이 살아난다. 그리고 ‘맥나마라’(McNamara), ‘맥밀란’(McMillan), ‘웬남’(Vietnam)의 경우엔 ‘맹나마라’ ‘맹미란’ ‘웬남’등으로 발음되는데(接變現象)이는 活用은 없지만 우리의 言語慣習上 그렇게 된것이니 이를 구태여 音節을 늘려서까지 K.T 등 原音을 나타내려는 노력은 矯角殺牛로 그치고 말것이다.

外國語를 表記함에 있어서 音節을 늘리지 않는다는 原則은 가장 歷史가 오랜 漢字말에서 例外 없이 적용되어 왔다. ‘學歷’을 우리는 ‘학력’으로 原音대로 두 音節로 발음하고 表記하지만 같은 말을 日本語는 ‘ガクレキ’(가구레기)와 같이 네 音節로 발음하고 표기한다. 이는 우리말이 얼마나 音節을 重要視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3. 각 낱말의 音節은 되도록 한 音節에서 세 音節까지로 줄인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중요치 않은 字音이나 類音(Allophone)은 省略한다.

前記 音節問題項에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우리의 言語慣習은 두 音節을 가장 흔히 쓰고 한 음절과 세 음절이 그 다음이오 네 음절이상은 꼭 더물게 쓴다. 그렇기때문에 外來語도 이어 따라야 하는것이다. 可及的이면 音節을 줄이는것이 좋은 것이다. stainless steel 이 ‘스텝’이 되고 handbag, background 가 ‘백’으로 줄어든것은 이 경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第2表 參照)

4. 重母音 重子音은 겹홀소리 겹닿소리로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原音이 우리 言語慣習에 맞지않을 경우엔 한 音素를 省略할수 있다. (重母音의 處理 重子音의 處理項 參照)

5. 우리말에 적당한 對應音韻이 없는 子音은 낱말의 앞 音素의 有聲 無聲에 따라 가장 가까운 音素로서 表記한다.

第15表 子音表記對照表

初聲音 혹은 無聲音뒤		有聲音뒤		實例
f	후 또는	호	ㅍ(ㅍ)	father→화더. fifty→핍티
v	우 또는	오	ㅂ	viva→위바
θ	으 또는	스	ㅅ	thrill→으릴. Smith→스미스
ð	ㄷ		ㄷ	thou→다우. father→화더
k	ㄱ		ㅋ(ㄱ)	concorde→공코드
T	ㄷ		ㅌ(ㅅ)	total→도탈
P	ㅂ		ㅍ(ㅂ)	popular→보풀러
g	ㅍ		ㄱ	gum→껌. Gregory→끄레코리
d	ㅌ		ㄷ(ㅅ)	dancer→댄서 code→코드
b	ㅃ		ㅂ	bar→빠. OB→오비

(괄호안은 활용않는 받침의 경우)

10. 結 語

文教部編修資料 혹은 한글학회의 表記案을 따르고 있는 듯한 오늘날 매스컴미디어에 있어서의 外來語表記는 原音의 枝葉的인 發音問題에 執着한 나머지 우리말의 音韻體系와 우리나라 大衆의 言語慣習을 度外視한 感이 있다. 그결과 大衆을 상대로 하는 매스미디어가 오히려 大衆에게서 疎遠되고 따라서 나라의 近代化過程에서 손아저 들어오는 外國날말들이 좀처럼 우리 言語團體에 歸化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들은 輸入된지 수년이 지난 外國날말도 괄호로서 特別待遇를 해야하는 處地에 있다.

심지어는 濠洲, 和蘭, 伊太利등 이미 우리말이 된지 수십년이 된 外來語들을 새삼 ‘오스트레일라’ ‘네덜란드’ ‘이탈리아’등으로 고쳐 씌우로서 오히려 혼란을 이르고 있다.

音節을 늘리는 경향은 우리 音韻體系를 破壞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필요한 괄호와 아울러 新聞, 通信 및 雜誌의 紙面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반발하여 본양대로 되돌아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外來語가 제대로 우리 言語團體에 歸化되었다면 구태에 괄호로서 그것을 孤立시킬 필요가 없다 괄호를 사용하면서 까지 生疎한 말을 強要하는 것은 讀者들에게 不快感과 威壓을 줄 뿐만 아니라 新聞製作의 効率化面에서도 큰 制約을 주게 되기때문에 再考할 문제다.

이런 點에서 이지음 점차로 數量單位를 外國文字의 符號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만하나, 大衆을 상대로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우리글로 略字를 마련 해야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말의 効率化와 美化와 民主化를 위해선 外來語表記面에서도 主體性의 確立이 要望된다.

本稿에서 마련한 試案은 어디까지나 試案이니만큼 앞으로 이런 方向으로 더 專門的인 研究를 必要로 하는 것임을 附言해 둔다.

Problems on How to Spell Loan-words

Kim Yoo-ik

A loanword is not a foreign word since its original phoneme has already transformed and duly assimilated into the language environment of our society. It, therefore, is entirely subject to the grammar and customs which rule our language.

In this viewpoint, this is to review controversial problems on how to spell loanwords which are often disputed among scholars and frequently contradicted among news media and to try to solve them in accordance with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our language and letter as well as in view of our speech customs.

Nowadays, editors of the Korean mass media, who had been keenly felt that there must be some kind of unified rule on spelling of gradually increasing foreign-originated words, generally abide by the Education Ministry's interim regulation on how to spell loanwords, which were made for use in compilation of school texts, just for the sake of unification.

Some intellectuals, however, severely criticize the regulation insisting that it has no principle and even committed mistakes by stressing too much to express the original phonemes and consequently making spelling and pronunciation of our language very inconvenient.

Spelling of a loanword has no reason to be regarded as an exception from the three principles of language formation, Efficiency, Commonality, and Rationality.

A word in Korean language generally is consisted of one or two syllables, although some have more than three. As each phoneme is relatively simple compared with that of western languages, first thing to do to import western words into Korean language environment is to simplify their pronunciation so as to make them easy to settle down in the new community.

In this process of adaptation, some unimportant phonemes, such as allophones, could be ignored and discarded, if necessary, especially when the foreign word has too many syllables to become pertinent as a Korean word.

The phonemic system of Korean language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ones. The phonemic gap between them must be narrowed, as much as possible, if any of the foreign words were to be nationalized as an efficient, commonal, and rational unit into the new society.

Phonetic assimilation of foreign-originated words is well displayed in the Chinese classics, which have been used as efficiently as our own words in Korean society since they were introduced from ancient China more than one thousand years ago. During the long period of assimilation, the original phonemes of Chinese classics has been transformed peculiarly in each country, Korea, Japan, Vietnam, as well as in China itself.

One of most controversial problems in the first stage of nationalization of a foreign word is how to express unfamiliar phonemes of foreign languages with Korean letter 'Hangul', for there are a number of phonemes that is quite difficult for Koreans to pronounce and thus impossible to spell out precisely with the national letter. For example, Koreans cannot exactly discriminate by pronouciation between f, and p, and between b, and v.

In these cases, the most similar phonemes have to be used for the unfamiliar foreign ones, such as ㅜ or ㅛ for v, ㅓ or ㅕ for p, ㅜ or ㅛ for f, ㅓ for b, ㅜ or ㅛ for θ , ㅓ for δ , and so on.

In short, a loanword is a word not borrowed from foreign languages but a word created by the Korean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Only difference between a loanword and a national word is their origination and process of forming.

In using them, therefore, a loanword must not be segregated from the rest, in any form. It is quite non sense and absurd to use square brackets in order to discriminate a loanword from the others as some mass media in Korea are doing.